

바이오코리아 www.biocorea.co.kr



바이오산업에서 황금알을 찾겠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산업, 신약과 치료제를 개발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미래산업으로 비유되곤 한다. SVI에 입주한 벤처중 유일하게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바이오코리아(대표 이영성)도 황금알 생산에 도전하고 있다.

간기능개선 치료제 헬스칸 개발·출시

바이오코리아(대표 이영성)는 SVI(서울벤처인큐베이터)에 입주한 기업중 유일하게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다. 이 회사는 최근 성균관대학 약학부, 경기의약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기능성 건강음료인 '헬스칸(HealthKhan)'을 출시했다. 특히 물질인 'HEPA-L1(용아초 엑스)'이 함유된 헬스칸은 피로회복, 간기능개선, 면역증강, 잦은 음주로 인한 숙취·갈증 해소 기능과 맛, 향이 일품인 것이 특징이다.

'HEPA-B1' 물질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가톨릭의과대학연구원, 성균관대학 약학부, 경기의약연구센터와 산학연 공동연구로 개발했다.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윤승규 교수가 2001년에 대한소화기학회에 처음 발표했고 간기능 개선(항산화, 간세포 재생, B형 간염바이러스 활성억제 및 감량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SCI 논문으로도 발표된 바 있다. 관련 특허(한국특허등록 5건, 한국특허출원 1건, 중국특허등록 1건, PCT 2건)만도 여러 개에 이른다. 현재 이 물질은 태평양제약과 의약품(간보호제, B형 간염치료제)으로 공동개발 중에 있다. 이영성 대표는 "2009년에 의약품 출시를 위해 임상을 추진하고 아모레퍼시픽 설류차 사업팀, 한국인삼공사, 서울유유 등 식품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원료 및 제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판매확대 및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헬스칸 제품 수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HEPA-L1' 물질이 얼마 전 중국에서 특허등록을 마쳤고 중국 3대 제약회사인 업체와 MOU를 체결했다. 특히 헬스칸을 수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은 B, C형 간염 환자가 1억 6천만 명으로 잠재적으로 매우 큰 시장입니다. 중국에 핵심물질의 원료 식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내년엔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헬스칸 제품의 국내시장 판매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환우회 모임인 한국간건강협회를 통해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헬스칸을 간기능개선, 숙취해소 등의 식·의약품시장을 이끌 주력제품으로 내놓기 위해 다양한 전략의 마케팅과 제제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판매중인 헬스칸의 제형을 정제, 미립, 차, 음료 등으로 다양화 하여 여러 제품의 형태로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코리아는 산학연과 공동으로 신약 및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연물 의약품인 간염치료제 물질을 분리 정제하여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 B형 간염치료제(BKL-1), C형 간염치료제(BKJ-1) 물질을 성균관 약대, 경기의약연구센터와 공동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 이영성 대표는 "올해 매출은 3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 중국으로 헬스칸 제품의 수출이 본격화되면 실적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2000년에 창업한 바이오코리아는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회사운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이오벤처에 관심있는 투자자를 찾는 일이었다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바이오 사업은 투자 리스크가 큰 관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제품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유명 제약회사와 같은 파트너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은 자금, 연구개발, 영업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신약과 치료제를 개발만 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바이오코리아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연구성과로 미래에 황금알을 생산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